

『新編諸宗教藏總錄』의 찬술배경과 서지기술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Background of Writing
Sinpyeon Jejong Gyojang Chongnok and its Bibliographic Description

金 聖 洙 (Kim, Sung Soo)*

◁ 목 차 ▷

- | | |
|-----------------|--------|
| 1. 서론 | 4. 결론 |
| 2. 『敎藏總錄』의 찬술배경 | <참고문헌> |
| 3. 『敎藏總錄』의 서지기술 | |

< 초 록 >

이 논문은 『新編諸宗教藏總錄』의 撰述背景과 書誌記述에 관하여 고찰한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총록』의 찬술배경을 考究한 결과, ① 義天의 念願은 동아시아 불교연구서인 章疏들을 수집하여 『교장총록』으로 目錄化하고, 이 목록에 입각하여 諸宗教藏을 一藏으로 板刻하고 간행함으로써, 제종교장이 ‘第4藏’으로써 대장경 經·律·論 三藏과 함께 영원히 전래되도록 함으로써 불교를 弘布하는 것에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② 의천이 『교장총록』을 편찬하면서 그 제목에서 특히 ‘諸宗教藏’이라 明記하여 ‘諸宗’을 강조한 이유는, ‘諸宗의 兼學만이 佛陀의 가르침(佛敎) 全般을 파악하고 證得할 수 있다’는 信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교장총록』의 서지기술 사항을 考察한 결과, ① 『교장총록』의 目錄記入方式은, ‘현대 목록학’에서 ‘첫줄 내어쓰기 방식’에 比肩되는 이른바 ‘첫줄 올려쓰기 방식’의 탁월한 記入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② 『교장총록』에서는 11세기 말기에 ‘書名先記入方式’을 채택함으로써 章疏目錄의 세계적인 효시(嚆矢)를 이루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국 목록규칙’ 및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M))에서는 20세기 후기에 와서야 비로소 著者先記入方式에서 書名先記入方式으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교장총록』 書誌記述의 방식은 각 著述(章疏)의 識別性과 簡潔性을 極大化시킨 획기적인 목록기입법으로 創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장총록』 書誌記述의 獨創性과 卓越性이 立證되었다.

要語: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高麗 諸宗教藏, 高麗 續藏經, 高麗 章疏目錄

* 淸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敎授(muyokss@hanmail.net)

접수일: 2016년 5월 27일 최초심사일: 2016년 6월 14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25일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background of writing *Sinpyeon Jejong Gyojang Chongnok* and its bibliographic descrip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n investigation of the background of writing *Sinpyeon Jejong Gyojang Chongnok* shows that ① Uicheon aimed to promote Buddhism around the world by collecting all researches on Buddhism in East Asia, compiling them into *Gyojang Chongnok* as a bibliography, publishing and transmitting Jejong Gyojang as ‘the 4th Jang’ permanently along with the ‘Three Jangs’, that is, Buddhist Scriptures, Commandments, and Commentaries, and ② Uicheon had a belief in that only the comprehensive study of Jejong enabled people to perceive and understand fully Buddha’s teaching and ideology.

Second, an analysis of the elements of *Gyojang Chongnok*’s bibliographic description demonstrates that ① *Gyojang Chongnok* adopted an excellent bibliographic method of entering separately the first line which could be compared with the modern bibliographic style of ‘heading the first line’, and ② *Gyojang Chongnok* pioneered the innovative bibliographic entries of describing Buddhist researches by using the ‘title main entry’ already in the 11th century. In modern cataloging rules and the ISBD, only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title main entry replaced the author main entry. It is confirmed that the bibliographic description of *Gyojang Chongnok* was designed to maximize the simplicity and clear understanding of each entry, and its creativity and excellence should be appreciated as the bibliographic landmark in the world.

Key words: Uicheon(義天), *Sinpyeon Jejong Gyojang Chongnok*(新編諸宗教藏總錄),
Goryeo Jejong Gyojang(諸宗教藏),
The Second Tripitaka Koreana(高麗 再雕大藏經),
Bibliography of Buddhist researches in Goryeo

1. 서론

章疏¹⁾目録으로서 세계적인 효시(嚆矢)를 이루는 『新編諸宗教藏總錄』²⁾과 고려諸宗教藏에 대하여, 그 동안 필자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³⁾ 이들 연구에서 『교장총록』은 一定한 準則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조직된 분류체계 위에서 편성된 탁월한 목록임⁴⁾을 규명한 것을 비롯하여 ‘제종교장의 가치와 의의’와 그 ‘편성의 사상적 배경’ 및 ‘체계성과 국제성’ 등에 관한 사항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大覺國師 義天은 그의 祖父였던 顯宗 때 착수되어 文宗(의천의 父親) 및 宣宗 시대에 완성(1087)된 고려 ‘鎮兵大藏經(전쟁(兵)을 진압

1) 經律論 三藏의 佛典에 관한 東洋 學問僧 등의 연구 저술 및 논문들에 대한 총칭.

2) 이하 ‘『교장총록』’이라 약칭함.

3) ①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12).

② 김성수, “教藏總錄 經部 分類體系의 分析,” 『圖書館學』 第10輯(1983), 121-148.

③ 김성수, “高麗續藏經目錄 編成의 사상적 배경,” 『인문과학논총』 제6집(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87. 12), 215-235.

④ 김성수, “『신편제종교장총록』의 著錄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6집(1997. 7), 1-22.

⑤ 김성수, “고려 諸宗教藏의 가치와 의의에 관한 연구,” 『불교학연구』 제30호(2011. 12), 7-63.

⑥ 김성수, “의천, 『신편제종교장총록』의 체계성과 국제성,” 『고려 제종교장 학술발표회』 (일시: 2013년 3월 28일(목) 오후1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세미나룸. 주최: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33-56.

⑦ 김성수, “의천, 제종교장의 수집 배경 및 간행 영향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55-89.

⑧ 김성수, “『교장총록』 천태·법화 章疏 및 의천의 시대정신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62집(2015. 6), 65-99.

4) 즉 『교장총록』의 분류체계는, 각 佛典 排列의 순서에 있어서 의천의 教學觀이라 할 수 있는 ‘圓融의 門, 終頓의 旨, 始教의 宗, 小乘의 說’ 등의 순서에 입각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一定한 準則이 있음을 논술하였다. 그리하여 종래 大屋德城이 주장한 바 있는 ‘『교장총록』의 분류체계는, 『開元釋教錄略出』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고, 華嚴五教의 教判이나 天台五時八教의 判釋에 의거하여 編成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定準(一定한 準則)이 없고 蕪雜(無秩序)하다(大屋德城, 『高麗續藏經雕造考』 (東京: 便利堂, 昭和12(1937)), 37)’라는 견해는 研究의 不充分에서 基因한 誤謬였음을 糾明하였다.

(鎭)한 대장경: 初雕大藏經)⁵⁾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 出家(1065: 의천 11세 때)하였고, 그는 ‘고려에 經論(대장경)은 갖추어져 가고 있으나 疏鈔(章疏)가 부족함’을 주목하고, ‘비록 대장경(經論)은 갖추어진 다 하더라도 章疏가 없으면 佛法을 유통시킬 길이 없다’⁶⁾는 것을 절감하였다. 이에 의천은 19세 때(1073)에 <代世子集教藏發願疏>를 올리면서 ‘新羅·高麗는 물론 古수에 걸쳐 中國(唐·宋)과 遼 및 일본과 高昌國 등 동아시아 전체에 散在하는 百家의 科教(章疏)들을 모두 모아서 一藏(諸宗教藏)으로 결집하여 유통시킴으로써, 像法을 다시 일으켜⁷⁾ 국가를 이롭게 하고 중생을 두루 구제하겠다.’⁸⁾는 크나큰 誓願을 세웠다. 이같이 ‘의천의 章疏 수집에 대한 국제적인 기획과 그 雕造’⁹⁾의 실천은 ‘의천의 一生에 걸친 숙원사업’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의천은 ‘중국의 章疏를 총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몸소 中國의 開封과 杭州 등지를 왕래하고 귀국’¹⁰⁾한 것을 비롯하여, 요나라와 일본 등지의 章疏 수집을 위하여 書信을 통하여

-
- 5) 13세기 중기에 高宗은, 再雕大藏經(판만대장경)을 雕造한 이후인 1255년에, ‘초조대장경에 대하여 “鎭兵大藏經”이라 지칭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高麗史』 제129권, 열전 제42, 최충헌 條에 기록되어 있는 [최항(崔沆)에게 내리는] 詔書(조서)에 의거하면, “[高宗] 41년(1254: 甲寅)에 … 明年(1255)에 [최항에게 내리는] 詔書’에서 말하기를 … “… 歷代로 내려오던 鎭兵大藏經이 몽고의 군사(狄兵)에 의하여 모두 불타 버리고 …”라 하였다. 이로 보아 고종을 비롯한 13세기 당시에 초조대장경을 ‘鎭兵大藏經’이라고 命名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 장소 및 일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2호(2011. 5), 75-96)”.
 6)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序,” 『大覺國師文集』 卷第1.
 7) ‘像法시대에 융성하였던 불교’를 의미함.
 8) 義天, “代世子集教藏發願疏,” 『大覺國師文集』 卷第14. 參考.
 9) 실제로 의천은, 그가 수집하는 章疏들을 諸宗教藏으로 편입하여 彫印(목판 간행)할 것을 29세(1083)에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宣宗을 대신하여 제종교장을 간행하고자 하는 글), (義天,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大覺國師文集』 卷第15)을 상소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10) 의천은 30세 때인 1084년(宣宗 1) 정월에 <請入大宋求法表>를 올려 渡宋 求法의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群臣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이듬해(1085) 4월 초과일날 壽介와 良辯 두 제자만을 데리고 宋商 林寧의 배편으로 예성강 하구를 출발하여, 5월 2일에 宋 密州 板橋鎭에 다다랐다. 의천이 송나라에 체류한 14개월 동안, 그는 開封과 杭州를 왕복하면서 송 황제 哲宗과 황태후를 비롯하여 관료·문인·각 종파의 고승 50여 명 등과 교류하였고, 宋나라에 전래되는 章疏 등 3천여 권을 수집하여 왔다. 의천은 1086년 5월 20일에 송의 明州에서 귀국길에 올라, 6월 18일에 고려의 예성강 하구에 도착하였다.

疏通하는 등의 심혈을 쏟았으며, 신라의 章疏를 수집하기 위하여 경주까지 오가기도 하였다.¹¹⁾ 이와 같이 의친은 20여년에 걸쳐서 고려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전체에 산재하는 章疏들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이를 一藏의 諸宗教藏으로 結集하기 위하여, 章疏目錄으로서는 世界最初이자 그 嚆矢인 『新編諸宗教藏總錄』을 編撰(1090년 8월)하였던 것이다.¹²⁾

위와 같은 『교장총록』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그 찬술배경과 서지기술 및 내용 구성에 대하여 논술함으로써, 필자가 이미 논술한 기존 일련의 연구 8편과 함께, 내년에 마무리되는 <고려 諸宗教藏 結集 및 DB구축 사업>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에 수록할 “『新編諸宗教藏總錄』의 組織 및 體系書誌學”이라는 과제연구의 기반연구로 삼고자 한다.

2. 『教藏總錄』의 찬술배경

의친은 고려(신라 포함)를 비롯하여 중국 및 遼와 일본 등 동아시아 전체에 산재하여 있는 章疏들을 수집하여, 대장경 三藏에 연속되고 보완시키는(補贖) 이른바 ‘第四藏’¹³⁾으로서의 ‘諸宗教藏(續藏)’을 一藏으로 완성하여 간행하고자 하였고, 수집된 제종교장을 체계화하여 각 주제 經典別로 群集化함으로써, 1090년에 의친이 손수 撰述한 章疏目錄이 바로 『新編諸宗教藏總錄』이다.¹⁴⁾

11) 의친의 국내 章疏의 수집에 대한 열망은, 『교장총록』이 편성(1090. 8)된 이후인 ‘1091년 봄에도 몹소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흩어져 있던 불교서적 4천여 권을 수집하여 왔다(최병헌, “대각국사집 해제,”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12-13)’.
12) 한편, 고려 鎮兵大藏經(조조대장경)은, 의친 송에서 귀국한 이듬해인, 1087년에 대장경 전체의 雕板이 완성되어 그 儀式을 치루었음을 주목할 수 있다.

13) 諸宗教藏에 대하여 ‘第4藏’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러나 ‘속장경’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을뿐더러 전통적인 삼장(三藏)에 별도의 장(藏)을 더해 사장(四藏)으로 늘리고자 했던 의친국사의 의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다(서진수, 이지범, 『고려대장경의 비밀』(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2013), 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고려 教藏의 원래 명칭은 ‘諸宗教藏’인데, ‘續藏經’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대각국사 의친이 대장경 속에 포함된 經藏과 律藏 및 論藏에 대한 각 종파의 章疏들을

佛典目錄을 만드는 까닭에 대하여, 智昇은 730년에 편찬한 『開元釋教錄』 卷第1'의 冒頭에서,

목록을 만드는 까닭은 참과 거짓(眞僞)을 구별하고 是非를 밝히며, 사람과 시대의 古今을 기록하고, 卷과 部의 많고 적음(多少)을 나누며, 빠진 것은 다 채우고 군더더기는 깎아 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른 가르침(正敎)을 고르고 부처님 가르침(金言)의 실마리를 잡아, 줄거리(綱)를 잡고 요점을 들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다만 法門이 그윽하고 깊은 데다 敎化의 그물이 넓고 크다 보니, 前後로 번역하여 傳하여진 것[佛典]들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끊기면서, 經典들이 흩어져 사라지고 卷軸은 들쭉날쭉해져 버렸다. 게다가 이상한 사람(異人)들이 거짓되고 망령된 내용을 더하기도 하여 혼잡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자취와 연원을 찾기 어려워지고 말았다.¹⁵⁾

라 하였다. 지승은 1세기인 永平年間¹⁶⁾에 중국에 처음 전래된 佛經인 『四十二章經』에서부터 8세기 『개원석교록』을 편찬하는 당시까지, 漢譯大藏經을 편성하고도 넘칠 만큼 엄청나게 번역된 수많은 佛典들에 대하여, 이들 經論들이 오랜 세월이 걸쳐 전래되면서 散失되거나 그 卷軸의 변동 등이 초래되고, 僞經의 등장으로 인하여, 각 경론들이 印度에서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漢譯될 당시의 그윽하고 심오한 경전(法門)의 본래 내용들과 그 淵源을 復元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智昇은 漢譯된 모든 경전들을 收合하고, 이들 각 경전에 대한 ① 眞僞와 是非, ② 번역자와 그 時期, ③ 번역된 경전의 部數와 卷數, ④ 번역의 完決性 여부 등을 낱낱이 결정하여 『개원석교록』을 편성함으로써,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 漢譯 木板大藏經의 始初가 되는 蜀板大藏經(972-983)을 雕造할 수 있는 기반을

『新編諸宗教藏總錄』이라는 목록으로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결집하고 간행한 불교 주석서 문헌의 충서를 뜻한다(서진수, 이지범, 『고려대장경의 비밀』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2013), 30).

15) 智昇, 『開元釋教錄』 卷第1, 『大正新修大藏經』 第55卷 (東京: 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 昭和52), 477. “夫目錄之興也 蓋所以別眞僞明是非 記入代之古今 標卷部之多少 摭拾遺漏 刪夷駢贅. 欲使正敎綸理金言有緒 提綱舉要歷然可觀也. 但以法門幽邃化綱恢弘 前後譯傳年移代謝 屢經散滅卷軸參差. 復有異人時增僞妄 致令混雜難究蹤由.”

16) 後漢 明帝(A.D. 57-75)의 年號.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래된 시기와 관련하여 永平 10年(A.D. 67) 등이 거론된다.

마련하였던 것이다.¹⁷⁾

이제 대각국사 의천이 『교장총록』을 撰述한 배경을 考究하기 위하여, 의천의 思想 및 신념 등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大覺國師文集』 등의 자료에서 관련 사항들을 추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천은 고려 ‘鎮兵大藏經’의 雕造¹⁸⁾ 및 완성 과정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출가·수행하였기 때문에, 깊고 그윽(幽邃)하면서도 넓고 광대(恢弘)한 불교의 教綱을 망라하는 대장경의 내용을 熟知하기 위해서는, 智昇의 『開元釋教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의천은 『新編諸宗教藏總錄序』(1090)에서

옛날 永平 이후로 葉書(梵語 經典)가 잇따라 전해지면서, 이를 번역하고 유통하는 일이 어느 시대이고 없는 때가 없었다. 그리하여 貞觀年間(627-649)에 이르러서는 經論이 크게 갖추어졌으므로, 서방 성인(佛陀)의 가르침이 막힘 없이 펼쳐지게 되었다.

聶道眞¹⁹⁾과 道安²⁰⁾으로부터 明佺²¹⁾과 宣律師²²⁾에 이르기까지 각각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일러 ‘晉錄’과 ‘魏錄’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臺本은 같은 데 출처가 달라서 新舊의 名目이 같지 않게 되어 그 내용에 의혹이 많아지고,

-
- 17) 실제로 중국의 漢譯大藏經 중, 목판대장경의 효시(嚆矢: 始初)가 되었던 촉판대장경(蜀板大藏經: 972-983)은 智昇의 『開元釋教錄』이라는 완벽한 佛典目錄이 있었기 때문에 목판대장경의 판각과 간행이 실현될 수 있었다.
- 18) 1011년(顯宗 2)에 고려는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여 ‘대장경의 조조(彫造)를 하늘에 맹서’하였고, 이에 거란(契丹)군이 스스로 물러갔기 때문에, 고려에서는 13세기의 고종(高宗) 당시에도 고려 초조대장경을 ‘전쟁(兵: 전쟁 병)을 집압(鎮)한 대장경’, 즉 ‘鎮兵大藏經(진병대장경)’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리하여 鎮兵大藏經은 顯宗 당시에 5,000軸의 秘藏을 조조(雕造)하였고, 文宗 당시에 다시 10만송의 계경을 조조하였다. 그리하여 1087년(宣宗 4) 2월에는 開國寺에서, 3월에는 興王寺에서, 4월에는 歸法寺에서 각각 대장경의 완성을 경축한 기록이 있다(『高麗史』 권제10, 世家 권제10, 宣宗 丁卯 4年 2月條, 3月條, 4月條. 참조). 따라서 鎮兵大藏經의 雕造는 1087년에 그 모든 板刻의 工程과 印經 등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9) 聶道眞: 譯經으로 유명한 西晉의 居士.
- 20) 道安: 東晉의 저명한 역경승. 佛經의 내용을 최초로 ‘序分·正宗分·流通分’의 三科로 나누었으며, 승려의 姓을 釋氏로 정하였다. 後漢시대부터 동진 孝武帝 시대(374)까지 200여 년간의 漢譯佛典 및 註釋書를 정리하여 『綜理衆經目錄』 1권을 편찬하였다. 이 목록은 ‘釋道安錄.’ 혹은 ‘安公錄.’이라고도 한다.
- 21) 明佺: 唐 則天武后 때의 승려. 695년에 『大周刊定衆經目錄』을 편찬하였다. 이 목록은 ‘大周錄.’ 혹은 ‘武周錄.’이라고도 한다.
- 22) 宣律師: 중국 南山律宗의 始祖인 道宣. 664년에 『大唐內典錄』 10권을 편찬하였다.

眞僞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의 經이 두 개의 本으로 나뉘기도 하고, 支品이 다른 하나의 經으로 바뀌는 등 40여 家가 분분하게 주장하여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 것이 오래되었다.

그러다가 開元年間に 비로소 大法師가 출현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智昇이다. 그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중복된 곳을 정리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뒤에 『開元釋教錄』이라고 명명하였다. 모두 20권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이 가장 精要하기 때문에, 議者가 ‘經法の 譜牒 중에는 지승의 기록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²³⁾라고 하였으니, 遺教를 住持한 그 功이 막대하다고 하겠다.

나는 일찍이 ‘經論(대장경)을 갖추었다²⁴⁾ 하더라도 章疏가 없으면 [대장경, 즉 불교를] 유통시킬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昇公(智昇)의 護法の 뜻을 본받아, 敎述(章疏)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의 임무로 삼아, 쉬지 않고 노력해 온 것이 지금 어언 20년이 되었다.

이제 그동안 수집한 바, 諸宗에서 찬술한 新舊의 章疏들을 감히 私의으로 秘藏할 수 없기에 모두 정리해서 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뒤에 다시 얻는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수록할 생각이다. 앞으로 編次와 函秩이 三藏의 正文과 함께 무궁히 전해진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때는 후고려(後高麗) ‘13대 임금님(宣宗)’ 즉위하신 지 8년째 되는 更午年(1090) 8월 초과일에 海東傳華嚴大敎沙門 某[義天]가 짓다.²⁵⁾

라 하였다. 즉 의천은 漢譯된 모든 經論(대장경) 내용의 系譜들을 가장 精要하게 정리한 『개원석교록』에 입각하여 각각의 경론들에 대한 原典을 파악하고, 이들 원전에 대한 註釋書, 즉 章疏를 탐색하고 수집하여 結集하는 길만이 불타의 가르침(佛敎)을 더욱 넓게 펼침과 동시에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表明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章疏의 수집과 결집에 관한 의천의 20년간의 노력은 ‘智昇의 護法の 뜻’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천이 세종교장을 수집하고 『교장총록』을 찬술한 배경에는, 『개원석교록』을 편찬함으로써 漢譯된 모든 경론(대장경)들을 바로잡고 정리한 ‘智昇의 護法情神’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의천은 ‘經論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章疏

23) 『宋高僧傳』 卷5, ‘智昇傳’에서 인용된 내용임.

24) 고려 鎮兵大藏經, 즉 초조대장경을 일컫음.

25)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序,” 『大覺國師文集』 卷第1,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62-63. 이상헌 선생이 번역한 『대각국사집』의 내용은, 그 原文을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정도로 그 번역이 탁월하다. 이하의 본고에서 이상헌 선생이 번역한 내용의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모두 그 원문의 제시를 생략함.

가 없으면 [대장경에 내포된 심오한 眞理들을] 流通(流衍)시킬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라고 回顧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의천이 20년간이나 章疏를 수집하고 수집된 장소들의 목록인 『교장총록』을 찬술한 이유는, 바로 대장경에 내포된 심오한 佛法的 내용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章疏들을 目錄化(『교장총록』)하고, 이 목록에 입각하여 ‘諸宗教藏’의 一藏으로 板刻하고 간행함으로써, 三藏의 正藏(大藏經)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전해져서 불교를 弘布하는 것에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의천은 『新集圓宗文類』 서문(序)에서,

… 그러므로 『華嚴[經]』의 大經을 강론하는 자들은 모두 智儼과 法藏과 清涼 三家의 義疏(章疏)를 깊이 표준으로 삼으면서 諸家の 해설을 참고로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

그리고 諸宗의 義學²⁶⁾에 대해서도 미상불 소개하도록 하였는데, 다만 敎理가 심오하고 經籍이 방대한 까닭에 問答할 즈음에 援引²⁷⁾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더구나 근세에 우리 화엄종(吾宗)에서도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좇아 근거도 없이 분분하게 우겨대는 바람에, 마침내 祖師의 玄旨가 막혀서 통하지 않게 한 것이 열에 예닐곱이나 되니, 敎觀에 정통한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어찌 크게 탄식할 일이 아니겠는가!

… 혹 이 要略을 보고 疏鈔(章疏)에 통달해서 經旨를 이해할 수도 있고, 경지를 이해해서 理性을 증득할 수도 있고 보면, … 佛法에 조예가 뛰어난 식견의 소유자라면 그야말로 우리 임금의 은혜를 느끼고 佛祖의 恩德에 감격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²⁸⁾

라 하였다. 이 글은 고려 華嚴宗(華嚴學)의 연구 논서들을 의천이 22권으로 간추려 정리한 『新集圓宗文類』의 서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① 『화엄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화엄종의 第2-4祖인 碧松智儼과 賢首法藏 및 清涼澄觀의 章疏(義疏)를 표준으로 삼아 窮究하여야만 비로소 『화엄경』의 심오한 敎理를 파악할 수 있고, 아울러 敎觀(敎學)에 정통할 수 있다는 의천의 論旨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의천은 ‘諸宗의 義學’을 주목하고, 의천 자신이 속한 宗派인 화엄종에

26) 諸家の 學說.

27) 자기주장의 근거로 다른 사실이나 문헌을 인용함.

28) 義天, “新集圓宗文類序,” 『大覺國師文集』 卷第1,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59-60.

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종파(諸宗)의 학설(義學)들을 두루 파악하는 ‘諸宗의 兼學’을 주장하였다. 이는 고려 華嚴宗 내에서도 ‘제종의 겸학’이 미비하여 ‘奇異한 것을 좋아하고 末端을 좇을 경우에는 祖師의 玄旨가 막히는 경우’²⁹⁾의 사례를 직접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제종의 겸학’만이 佛教 全般에 대한 經旨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불교의 이치를 온전하고도 논리적으로 증득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③ 의천은, 그가 수집한 章疏들을 목록화하면서 『新編諸宗教藏總錄』이라 命名하여, 단순히 章疏의 結集이라는 개념으로서의 ‘教藏’이라 하지 않고, 특별히 ‘諸宗教藏’이라고 하며 ‘諸宗’을 강조한 이유 또한 ‘제종의 겸학’만이 佛教의 全般을 證得할 수 있다는 信念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의천의 章疏를 통한 ‘제종의 겸학’ 사상은 『刊定成唯識論單果』 序’에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 그런데 내 생각에 起身(『大乘起信論』)과 唯識(『成唯識論』) 두 論이야말로 法性和 法相 兩宗의 樞要인 만큼, 학인들은 응당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내가 五教³⁰⁾를 窮究해 보고 싶기 때문에 兼學하려는 것이다. … 더군다나 清涼[澄觀]이 “性(法性宗)과 相(法相宗)은 하늘의 日月과 같고 『주역』의 乾坤과 같으니, 이 두 부분을 겸학해야만 통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음이겠는가.

이를 통해서 『俱舍論』을 배우지 않으면 小乘[教]의 說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唯識論』을 배우지 않고서 어찌 [大乘]始教의 宗[旨]를 알겠으며, 『大乘起信論』을 배우지 않고는 어떻게 終頓의 [宗]旨를 알겠는가. 그리고 華嚴[經]을 배우지 않으면 圓融[한 圓教]의 門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참으로 알은 것으로는 깊은 곳에 이르지 못하지만, 깊은 것은 분명히 알은 것을 결합할 수 있으니, 이는 理數로 볼 때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경전의 偈頌에 이르기를 “연못이나 강물을 마실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大海의 물을 삼킬 수 있으리오. 二乘의 法門도 익히지 못하고서 어떻게 大乘을 배울 수 있으리오.”³¹⁾라고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信實한 말이다. 이승도 배워야 할 것인데, 하물며 대승이야 더 말해 뭐하겠는가.

29) 이는 아마도 均如 계열의 사례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 五教: ① 小乘教(『阿含經』 등), ② 大乘始教(『般若經』 등 空始教, 『解深密經』 등 相始教), ③ 大乘終教(『楞伽經』·『大乘起信論』 등), ④ 頓教(『維摩經』 등), ⑤ 圓教(『華嚴經』·『法華經』 등).

31) 이 구절은 『大乘大集地藏十輪經』의 『有依行品』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임.

근세에 佛法을 배우는 자들이 頓悟를 스스로 云謂하면서 權小의 교리를 업신여기다가 法性和 法相을 이야기하는 대목에 이르면 왕왕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곤 하는데, 이는 모두 兼學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따른 잘못이라고 하겠다. ...³²⁾

라 하였다. 즉 의천은 法性宗과 法相宗 등의 ‘諸宗의 兼學’을 重視하고 거듭하여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천은 「俱舍論」을 배우지 않으면 小乘[教]의 說을 알 수 없고, 「唯識論」을 배우지 않고서 어찌 [大乘]始教의 宗[旨]를 알겠으며, 「[大乘]起信論」을 배우지 않고는 어떻게 終頓의 [宗]旨를 알겠는가? 「華嚴經」을 배우지 않으면 圓融[한 圓教]의 門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다(是知不學俱舍不知小乘之說 不學唯識寧見始教之宗 不學起信豈明終頓之旨 不學華嚴難入圓融之門)³³⁾라 하였다.³⁴⁾ 즉 ① ‘연못 물’이나 ‘二乘(聲聞乘, 緣覺乘: 小乘)’에 비유되는 小乘의 핵심 論書인 「俱舍論」을 거론하면서 그 학습을 권장하고 있다.³⁵⁾ ② ‘大乘始教’의 대표 論書인 「唯識論」을 들면서 그 宗旨를 배울 것을 권유하고 있다.³⁶⁾ ③ 연이어 의천은 ‘大乘終教’의 핵심 논서인 「大乘起信論」을 대표적으로 제시하면서 ‘大乘頓教’³⁷⁾의 宗旨까지 익힐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④ 그리하여 의천은 ‘圓教’의 圓融한 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華嚴經」을 배워야 할 것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천은 「구사론」부터 「유식론」과 「起信論」 및 「華嚴經」에 이르기까지 諸宗의 핵심 經論들을 두루 빠짐없이 익힘으로써, 佛教全般에 걸친 敎學의 이해와 ‘제종의 겸학’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의천이 동아시아 전체 국가들에 散在하여 있는 章疏들을 수집하고, 『교장총록』을 찬술한 배경에는 ‘諸宗 敎學의 兼學’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2) 義天, “刊定成唯識論單科序,” 『大覺國師文集』 卷第1, 이상현 옮김, 『대각국사집』, 65-66.

33) 이 부분은 『교장총록』의 分類體系를 糾明할 수 있는 핵심 基盤이기도 하다.

34) 이 내용은 「賢首法藏의 五敎判」 등에 입각하여 논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5) 天台智者(538-597)는 소승의 대표 경전인 「아함경」을 「漸教」 및 「藏教」에 소속시키기도 하였다.

36) 大乘始教는 相始教와 空始教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시교에는 「解深密經」·「瑜伽經」·「唯識論」 등이 해당되고, 공시교에는 「般若經」·「中論」·「百論」 등이 해당된다. 元曉는 「四敎判」에서 이 부분을 通敎에 배정하기도 하였다.

37) 大乘頓教에는 「維摩經」 등이 해당된다.

넷째, 의천은 ‘內侍 文冠에게 주는 글(與內侍文冠書)’에서

… 이른바 策文을 지어 科擧에 及第하려 하는 것은 반드시 성인의 도를 배워 성인의 세상을 보좌함으로써 백성을 仁壽의 영역으로 이끌어 太平을 이루고자 함이니, … 儒者들도 이미 이와 같다면, 어찌 佛子들만 그렇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 속세의 인연에 힘입어, 16-7세 무렵부터 西方 聖人(佛陀)의 가르침에 중사하여 지금 여인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釋氏(불타)의 敎法 중에 중국에 유통된 것이 백에 한둘도 안되지만, **지금 전하는 三藏의 正文(大藏經)이 거의 6, 7천 권에 이르고, 그밖에 古승 賢哲이 註疏(章疏)를 낸 것이 1천년 동안 없지 않아서 이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비록 ‘출중한 재능의 소유자(上根機)³⁸⁾라 하더라도 몸을 마치도록 그 업을 다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데, 더구나 中根과 下根의 사람이야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내가 … 왕년에 道를 重히 여기고 생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국에 건너 갔는데, 그 뜻이 어디 있었느냐면 바로 聖人(佛陀)의 用心을 본받고자 함이었 습니다. …

대개 曲士³⁹⁾에게 道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는 것은 그가 믿는 가르침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니, 이는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는 까닭에 여름벌레에게 겨울의 얼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고, 우물 안 개구리에게 큰 바다(大海)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살펴 보건대, 五乘의 가르침 속에 대략적인 요체(大端)가 들어있으니, **불교를 배우는 자라면 미래제(未來際)를 다하도록 여기에 마음을 기울여야만(用心) 하겠습니까.** … 그리하여 우리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중생의 잘못된 소견을 구제함으로써 法輪이 인간세상(閻浮)에 다시 구르고, 道光이 千載(千歲)에 거듭 빛나게 하여 四恩⁴⁰⁾이 마침내 …⁴¹⁾**

라 하였다. 즉 의천은, 유학자나 佛子가 학문을 닦고 수행하는 이유는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이끌고자 함을 말하고, 이어서 6-7천여 권에 이르는 대장경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註疏(章疏)를 수집함과 동시에 『교장총록』을 찬술한 배경에

38) ‘출중한 재능의 소유자’라 번역한 대목의 原文은 ‘拔萃之器’라 하여 ‘上根器의 수행자’를 일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根器’는 根性에 따라 각각 法을 받아들이므로 根器라 한 것으로 보인다. ‘根機’에서의 ‘機’는 發動한다는 뜻으로, 根機는 敎法을 듣고 닦아 얻는 능력과, 교법을 받는 중생의 性能을 말한다.

39)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

40) 三寶(佛·法·僧)·국왕·부모·중생의 은혜.

41) 義天, “與內侍文冠書,” 『大覺國師文集』 卷第13,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267-269.

는, 古今 賢哲의 모범적인 章疏(註疏)에 입각하여 我執에 빠지기 쉬운 ‘중생의 잘못된 소견을 구제함으로써, 佛法의 道光이 千歲에 거듭 빛나게 하겠다.’는 의천의 根源的인 念願이 內在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의천은 ‘新編諸宗教藏總錄序’(1090)에서 “昇公(智昇)의 護法의 뜻을 본받아, 教迹(章疏)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의 임무로 삼아 쉬지 않고 노력해 온 것이 지금 어언 20년이 되었다.”라고 회고하면서 章疏의 수집을 자신의 畢生의 宿願事業으로 맹세(盟誓)한 사항은, 의천이 19세 때에 發願한 ‘代世子集教藏發願疏(年十九作)’에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 삼가 생각건대, 바가바(婆伽婆: 佛陀)께서 가르침을 베푸신 것으로 말하면, … 音雷를 크게 떨치고 法雨를 멀리 적시어 보리(菩提)의 길을 가르치고 해탈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못 중생들을 啓導하고 지극한 教化를 펼치셨으니, 이를 통해서 識心見性하고 返本還源한 자들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뒤 鶴樹에서 빛을 숨기시매 葉巖에서 結集하였고, 馬鳴과 龍猛(용수)의 무리가 論을 지어 經을 宣揚하였으며, 無着과 天親(세친)의 부류가 그 일을 계승하여 더욱 꽃을 피웠습니다. … 중생의 근기가 부처의 教化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 漢나라 조정 때에 와서야 白馬를 맞이하였습니다. … 騰蘭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獎淨이 서역에서 돌아온 뒤로, … 그리하여 眞詮을 거듭 번역하여 名教를 크게 선양하였으니, 그 공이 크고 그 이익이 많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正法이 내려오면서 쇠퇴해지고 기연이 점차로 둔해졌으므로 四依보살이 이따금씩 나와 疏를 지어 發揚하는가 하면, 삼장법사가 또 걸출하게 나와서 鈔를 펼쳐서 輔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遺文이 번창하여 퍼지면서 온 세상을 받들어 행하게 되었으니, 실로 한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을 마쳤다고 말할 만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某(義天)는 일찍이 숙세(夙世)에 한 조각 善을 닦은 인연으로 … ‘龜木의 人身’⁴²⁾이라 생각하고 … 어찌하여 수륙제를 원만하게 베풀기도 전에 조그마한 몸이 그만 병에 걸렸단 말입니까. 비록 五陰이 싫다 하더라도, 어찌 한 세상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 만약 佛天의 扶衛를 의지하여 신체의 康和를 얻는다면, 재앙의 싹을 말끔히 잘라내고 수명을 더욱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이렇게만 된다면 어찌

42) 盲龜遇木: 『涅槃經』에서, 사람이 인간의 몸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고 또 부님이 계신 세상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 마치 大海 가운데서 ‘눈 먼 거북이(盲龜: 이 거북은 100년에 한 번씩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숨을 쉬 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함)가 큰 바다에 떠다니는 구멍이 뚫린 나무를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어렵다고 비유한 것.

단지 편히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또한 서원을 계속 세워서 다시 닦아 나갈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이 桑木(동방)의 구역은 평소에 竺乾(서역)의 교화를 우러렀는데, 經論은 갖추었으나 疏鈔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고금에 걸쳐 遼나라와 宋나라에 있는 百家의 科教를 一藏으로 모아 유통시킴으로써 불일(佛日)을 더욱 빛나게 하여 사된 그물의 매듭을 풀어버리고, 像法을 다시 일으켜 국가를 널리 이롭게 함은 물론, 恒沙와 같은 세계의 群生 모두에게 金剛의 선한 씨앗을 뿌리고, 다함께 보현보살의 道를 배워 길이 노사나불의 이상향에서 노닐게 하자 합니다.⁴³⁾

라 하였다. 의천의 나이 19세이면 1073년(文宗 27: 癸丑) 무렵이다. 여기서 의천은 ① 世尊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교화함으로써 識心見性 還本發源하게 하였으며, ② 佛 멸후 佛經의 結集과 馬鳴 등의 論書가 經을 선양하였으며, ③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譯經되었으며, ④ 중국에서 연구·저술된 疏鈔들은 불교의 發揚과 輔翼케 하였고, ⑤ 의천 자신은 출가하여 수륙제를 지내기도 전에 몸이 그만 병에 걸렸으나, 신체를 강화하여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⑥ 고려 땅에서 대장경은 갖추었으나, 불교의 연구와 수행에 부족한 章疏들을 고금에 걸쳐 宋나라와 遼나라에서 빠짐없이 수집하여, 一藏의 諸宗教藏으로 완성하여 유통시킴으로써 국가를 이롭게 하고 중생에게 선한 씨앗을 뿌리겠다는 크나 큰 發願을 맹誓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의천은, 그의 아버지인 文宗의 시대에 鎮兵大藏經(초조대장경)의 雕造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고려에 부족한 불교 연구서인 章疏(百家의 科教)들을 宋과 遼 등지에서 두루 모아서 一藏으로 완성하여 유통시키겠다는 서원을 세움으로써,⁴⁴⁾ 드디어 『新編諸宗教藏總錄』이 撰述되었다고 볼 수 있다.

43) 義天, “代世子集教藏發願疏(年十九作),” 『大覺國師文集』 卷第14,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285-287.

44) 실제로 의천이 元曉를 비롯한 우리 땅의 불교 연구서들과 중국 등지에서 百家의 科教들을 수집하겠다는 誓願을 세운 것은, 의천의 나이 16세 때인 1070년경 무렵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천은 ‘新編諸宗教藏總錄序’에서 “승공(昇公: 智昇)의 호법(護法)의 뜻을 본받아, 教迹(章疏)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의 임무로 삼아, 쉬지 않고 노력해 온 것이 지금 어언 20년이 되었다.”라고 하여 ‘20년’이라는 年數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誓願이 표면화된 것은 ‘1073년’이지만, 文宗에 의하여 鎮兵大藏經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直視하면서, 의천의 가슴 속에는 1070년 무렵부터 이미 ‘第四藏으로서의 諸宗教藏의 章疏 수집과 一藏의 雕造’라는 念願이 ‘20년간’ 타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그리하여 의천은 ‘宣宗을 대신하여, 諸宗의 敎藏을 간행하며 지은 글(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에서

… 右(義天)는 삼가 아됩니다. …

대저 부처가 설한 것이 經이요, 경에서 나온 것이 論이니, 經은 論을 통해서 그 뜻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論은 疏를 기다려서 뚫리고, 疏는 義를 모아 밝혀지며, 義는 師를 통해서 서술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이어서 부처의 진리를 풀어내는(紬繹) 사람들이 대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智者(天台智顛: 天台宗)가 천태산에서 宗旨를 수립하고, 遠公(慧遠)⁴⁵⁾이 정영사에서 가르침을 내릴 수 있었으며, 慈恩(窺基)과 安國(李涉)이 衆說을 三時[敎判]로 종합하고,⁴⁶⁾ 賢首(法藏)와 淸涼(澄觀)이 異端을 五敎로 회통시킬 수 있었습니다.⁴⁷⁾ 그리고 南山의 行事와 東塔의 開宗 등이 나왔는가 하면,⁴⁸⁾ 후대에 諸家에 미쳐서는 거의 百氏를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동방은 元聖(元曉)으로부터 보잘 것 없는 이 몸에 이르기까지 衆善을 돈독히 하여 국가를 보전하였고 至仁에 의지하여 만물을 육성하였습니다. 顯祖(顯宗)께서는 5천 軸이 秘藏을 새기셨고, 文考(文宗)께서는 10만 송의 契經을 새기셨습니다. 그리하여 正文(대장경)은 원근에 퍼지게 되었으나, 章疏는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약 널리 외호하는 데에 뜻을 둔다면 …(이하 결락)…⁴⁹⁾

라 하였다. 여기서 의천은 ‘부처가 설한 經에서 論이 나왔으며, 經은 論을 통해서 그 뜻이 드러난다. 그런데 論은 疏를 기다려서 뚫리고, 疏는 義를 모아 밝혀지며, 義는 법사(師: 賢哲)의 해설을 통해서 그 의미와 뜻이 서술된다.’라고 제시함으로써, 결국 世尊이 설한 經典의 심오한 뜻은 賢哲들이 풀어내는(紬繹) 章疏(義疏) 등에 의하여 뚫리고 밝혀지고 서술된다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에

45) 慧遠(523-592): 577년 北周의 武帝가 불교를 폐지하라는 명령에 그 옳지 못함을 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隨 文帝가 중국을 통일하고 불교를 再興할 때, 혜원을 위하여 정영사를 짓고, 강설하는 法席을 열게 하는 등 후히 대접함으로써 天下의 六大德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華嚴疏』 7권, 『大乘義章』 14권, 『無量壽經疏』 2권 등등의 저술을 남겼다.

46) 窺基와 李涉은 모두 玄奘의 제자이다. 三時敎判은 法相宗의 敎相判釋이다.

47) 중국 華嚴宗의 ‘五敎十宗敎判’을 지칭하고 있다.

48) 唐나라 律僧인 終南山의 道宣이 『四分律行事鈔』를 짓고, 그의 제자인 長安 崇福寺 東塔의 懷素가 『四分律開宗記』를 지은 것을 말한다. 각각 南山律宗과 東塔律宗이라고 칭하며, 회소의 저술을 新疏라고 부른다(이상헌, 『대각국사집』, 306.).

49) 義天,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大覺國師文集』 卷第15,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300-301.

서 기라성 같은 法師들이 등장하여 天台宗 法相宗 華嚴宗(法性宗) 律宗 등등의 敎相判釋에 입각하여 經論을 回通시켰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고려에서는 비록 ‘대장경의 正文은 완비되어 소통되고 있으나 章疏는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라 하여 章疏의 부족을 애통해 하고 있다. 고려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불타의 가르침(佛敎)에 대하여 古今의 賢哲들이 註釋한 章疏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章疏의 수집과 그 학습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의천의 諸宗敎藏의 結集과 『敎藏總錄』의 編撰이 요구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위 ‘代宣王諸宗敎藏彫印疏’ 내용의 다음 장(張)인 『大覺國師文集』 卷第15의 第7張의 결락(缺落)으로 인하여, 정작 위 조인소(彫印疏) 제목과 관련한 제종교장의 彫印 企劃에 관한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이 유감이다.⁵⁰⁾ 다만 의천이 ‘송나라 行者 顏顯에게 준 글(與大宋行者顏顯書)’에 의하면

… 근래에 王旨를 받들어 諸宗의 章疏를 수집해서 [거의 수]천 권을 雕板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某集 약간과 某冊 약간을 부쳐 보내니, 秀州에 도착하는 날 仲閻梨 位通 문하에 나아가서 이러한 뜻을 말로 전해주기 바란다.⁵¹⁾

라 하였고, 게다가 金富軾이 지은 『靈通寺 大覺國師 碑文』에서는

… 태만하여 講論을 하지 않으므로公私 간에 經籍이 거의 모두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마침내 巨金을 들여 중국(宋)과 거란(契丹: 遼)과 日本에서 책을 구입하였다. 또 辛未年(1091, 宣宗 8) 봄에는 남쪽 지방에 내려가 수색해서 얻은 책이 무려 4천 권이나 되었는데, … 모두 수습하여 상자에 넣어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위(王)에 請하여 興王寺에 敎藏司를 설치한 다음 名流를 불러 잘못된 곳을 교정하여 간행하게 한 결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文籍이 크게 갖추어졌으므로 학자들이 기뻐하여 의지하게 되었다⁵²⁾ …

50) 諸宗敎藏의 雕造 時期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래(現傳)되는 原本 翻刻本과 重印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 雕造年이 가장 빠른 것은 1092년(大安 8; 宣宗 9)이고, 1102년(乾統 2; 肅宗 7)이 마지막 板刻年度로 나와 있다(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148, 152. 參照).

51) 義天, “與大宋行者顏顯書,” 『大覺國師文集』 卷第11,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234-235. “比來奉王旨 鳩集諸宗章疏[僅數]千卷 鏤板次 今先附去[某]集若干于[某]冊若 到秀州日 請詣仲閻梨位通下[仍]爲口 [傳]此意.”

52) [金富軾], 『靈通寺 大覺國師 碑文』,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695, 704.

라 하였다. 위의 두 기록에 의하면, ‘의천이 興王寺에 <教藏司>를 설치한 것은 1091년이며, 名流들을 불러 모아서 교정하게 하여 [제종교장의 간행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文籍이 크게 갖추어졌다(大備)’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諸宗教藏의 雕造는 教藏司의 설치와 동시에 제종교장의 板刻 작업이 着手되었을 것이며, 그 마무리는 아무리 늦어도 10년 이내인 의천의 涅槃(1101) 이전에는 그 雕造(木板 板刻)가 완료되었을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3. 『教藏總錄』의 서지기술

『新編諸宗教藏總錄』의 목판 간행본은 현재 國內外에 전래되는 것이 없고, 일본으로 건너간 목록의 筆寫本이 現存 最古의 資料로 現存하고 있다. 바로 ‘일본 高山寺所藏 『新編諸宗教藏總錄』’⁵³⁾이다. 필자를 포함한 ‘고려 諸宗教藏 結集 및 DB구축 사업’ 조사팀은 2015년 12월 25일에 <교토박물관>을 방문하여 이 자료를 실제 조사하였다.⁵⁴⁾ 본 장에서는 高山寺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조사 결과 중 ‘목록의 기술사항’에만 국한하여 ‘『교장총록』의 書誌記述’에 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⁵⁵⁾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高山寺本 『教藏總錄』’⁵⁶⁾은

“怠不講故 官膳私楮 亡散幾盡 遂重購求書於中國 以及契丹日本 又於辛未春 南遊搜索 所得書無慮四千卷 … 俱收並拾 包匭以歸. 請置教藏司於興王寺 召名流 刊正謬缺 使上 鈇槧 不幾稔間 文籍大備 學者忻賴.”

53) 이 자료는 현재 일본 <교토박물관>에 위탁 보존되고 있다.

54) 필자는 『신편제종교장총록』에 대하여 석사논문(김성수,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을 작성하였는데, 35년 이후에야 비로소 ‘고산사본’ 實物 도서를 肉眼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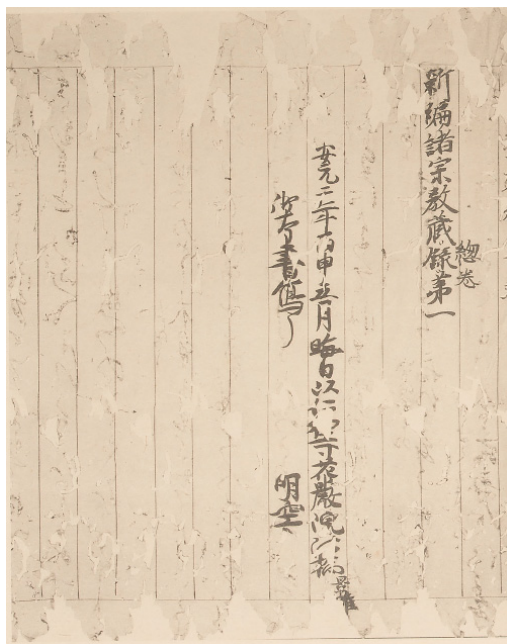
55) 물론 일본 승려 明空이 그 底本(原本)의 기입 방식과 ‘꼭 같은 形式으로 筆寫移書하였을 것이다’라고 前提하는 경우이다. 明空이 筆寫할 때의 그 原本이 刊本인지 筆寫本인지는 현재 그 추정조차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목록을 移書할 경우에는 그 기입 양식을 同一하게 옮겨 쓰는 경향이 강하다.

56)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76년(安元 2) 5월에 일본 화엄종 계통의 승려 ‘明空’이 필사한 것이다. 1090년에 편찬된 『교장총록』이 일본으로 전래되어 86년 후에 筆寫되었을 을 알 수 있다.

‘전체 1卷의 卷子本’으로 裝幀되어 있다.

첫째, 고산사본 『교장총록』은, <그림 2>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큰 두루말이책(卷子本) 속에 ‘上·中·下’ 3권의 筆寫本으로 구성됨으로써, 대장경의 經律論 三藏을 각각 配當하여 각 經論에 해당 章疏들을 結成하고 있다. 그리하여 제1권인 ‘海東有本見行錄 上’에는 대장경의 經部에 해당하는 경전들과 관련한 章疏들을 結集하여 記入하고 있다.

둘째, 『교장총록』의 目錄記入의 양식에서는 經部 각 經典과 관련한 章疏에 대한 書誌記述의 방식은, 현대목록학에서 이른바 ‘첫줄 내어쓰기’의 방식과 같은 탁월한 記入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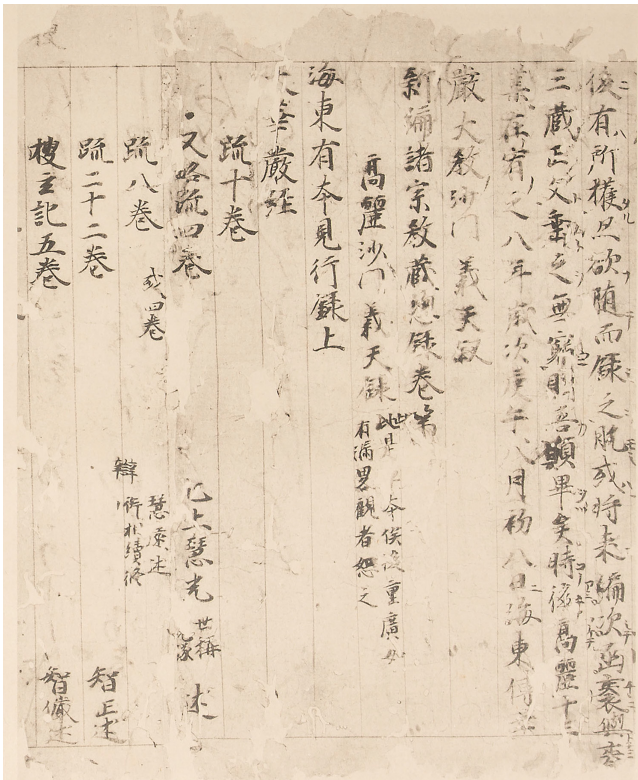


<그림 1> 高山寺 所藏 『新編諸宗教藏總錄』 上卷 卷末題에 記錄된 筆寫 時期 및 筆寫者⁵⁷⁾

57) 출처: 大屋徳城 編, 『新編諸宗教藏總錄』 影印本 제1권 (東京: 便利堂, 昭和11(1936)), [50].

<그림 2-1>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목록의 記入方式을 현대의 ‘가로쓰기’로 재작성하여 보면, <표 1>에서 제시되는 기입의 방식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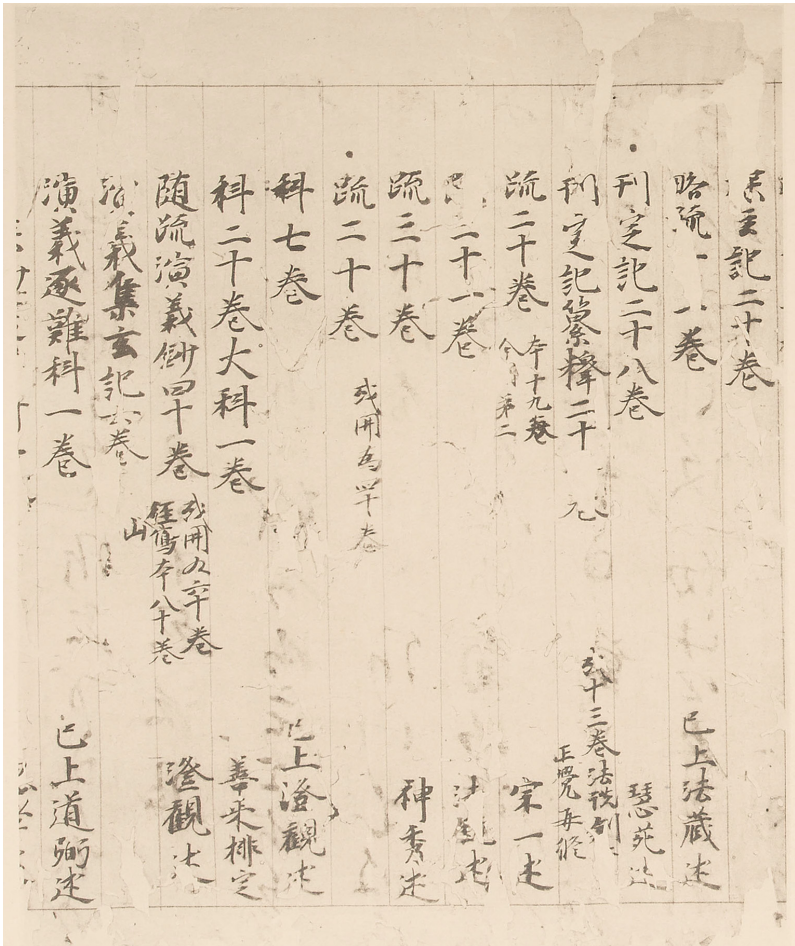
<그림 2>와 <그림 3> 및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교장총록』에서는 章疏의 ‘대상 經論의 書名’을 기입할 때, 해당 經典名 아래에 집결되는 ‘각 章疏들의 書名과 그 卷數 및 著者名을 기입하는 行’의 시작 위치보다 두 칸(字) 정도 돌출시키는 방법, 즉 ‘첫줄 내어쓰기⁵⁸⁾’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高山寺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卷首題 등⁵⁹⁾

58) 목록의 세로쓰기일 경우에는 ‘첫줄 올려쓰기’라고 指稱하여야 할 것이다.

59) 출처: 大屋徳城 編, 『新編諸宗教藏總錄』影印本 제1권 (東京: 便利堂, 昭和11(1936)), [2].



<그림 2-2> <그림 2-1>에 이어지는 高山寺本 『新編諸宗教藏總錄』⁶⁰⁾

이 목록은 원래 「春記」라는 자료의 뒷면(後面)에 필사되어 있었다고 한다. 「교장총록」의 중요성을 認知되자, 「교장총록」을 前面으로 하여 再裝幀하고, 그 後期에 다시 褙接되었음을 알 수 있다.

60) 출처: 大屋徳城 編, 『新編諸宗教藏總錄』影印本 제1권, [3].

<표 1> 『諸宗教藏』의 目錄記入 方式의 가로쓰기 재작성

海東有本見行錄上	
大華嚴經	
疏十卷	
又略疏四卷	已上 慧光世稱/光緣述 ⁶¹⁾
疏八卷 <small>或四卷⁶²⁾</small>	慧遠述/辯相續 ⁶³⁾ 修
疏二十二卷	智正述
搜玄記五卷	
略疏十二卷	已上 法藏述
刊定記二十卷	慧苑述
.....	



<그림 3> 高山寺本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大涅槃經 章疏의 書誌記述⁶⁴⁾

- 61) ‘世稱/光統’은 小字雙行으로 記錄되어 있음. ‘세상에서 ‘光統’이라 부르다’라는 의미. 『新修大藏經』 第55卷 目錄部에서는 ‘光緣’으로 解讀하여 인쇄하고 있으나 ‘光統’이 옳은 듯하다. 慧光은 ‘光統律師’로 불렸(指稱)기 때문이다.
- 62) 『大華嚴經疏』 8卷’에 ‘或4卷’이라는 이른바 ‘或卷數’를 小字로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사항은 ‘慧遠의 ‘대화엄경소’는 ‘8권’짜리가 ‘교장총록’에 정식으로 편입된 것이며, ‘或四卷’이라는 후권수는 ‘異本에 4卷本도 있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 63) ‘慧遠述/辯相續’은 小字雙行으로 記錄되어 있음.
- 64) 출처: 大屋徳城 編, 『新編諸宗教藏總錄』 影印本 제1권, [16].

이와 아울러, 목록을 기입할 때에는 書名과 著者名 중에서 著者名보다 書名을 우선(于先)하여 기입하는 방식, 즉 ‘書名先記入方式’을 채택함으로써 해당 경전의 나머지 관련 章疏들이 그 書名으로 집결됨과 동시에 나란히 順次的으로 羅列됨으로써, 각각의 章疏에 대한 識別性이 뚜렷하고 용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經典(書)名에 대한 ‘첫줄 올려쓰기’의 기입 방법은, <그림 3>에 보는 바와 같이, 『교장총록』 제1권에서 두 번째로 결집되는 ‘『대열반경』의 章疏群’의 기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나머지 中卷이나 下卷에서 기입되는 律部와 論部에 속하는 각 經論 書名의 기입 방법 또한 동일하다.

위와 같은 목록의 기입 방법은 ‘현대 목록학’, 예컨대 <한국목록규칙 제3판(KCR3)>의 기본기입에서 이른바 ‘첫줄 내어쓰기’의 방식과 흡사하다. 게다가 현대의 ‘서양 목록규칙’이나 ‘『한국목록규칙』 제2판(KCR2)’에서 표준으로 삼았던 ‘著者先記入方式’을 堅持하다가 20세기 후기에 들어와서야 <國際標準書誌記述法(ISBD(M))>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書名先記入方式’으로 전환하였다.⁶⁵⁾ 이와 같은 서명선기입방식은 각 자료의 書名을 우선적으로 검색하여 단위 저작에 관한 識別性을 대폭 높임으로써 정보검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서양이나 한국의 ‘현대 목록규칙’에서는 ‘첫줄 내어쓰기’ 방식 및 ‘서명선기입방식’은 20세기 후기에 와서야 겨우 사용하기 시작한 반면, 『교장총록』에서는 章疏目錄의 세계적인 효시(嚆矢)를 이루면서도 11세기 말기에 이미 위와 같은 ‘서명선기입방식’과 ‘첫줄 내어쓰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諸宗教藏의 목록 기입법은 獨創的으로 創案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편제종교장총록』의 書誌記述 및 目錄記入법의 독창성과 탁월성이 자연스레 立證되었다고 할 것이다.

65) ① 김남석, 『도서편목법』 개정증보판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5).

② 예바 베로나(해설 및 예시), 김태수, 이재선(번역), 『저록작성원칙규범』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5).

③ 국립중앙도서관 편,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단행본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3). 등 참고.

셋째, 『교장총록』 목록의 기입에 있어서, 그 분류체계는 이른바 ‘部, 類, 綱, 目의 體系’로 보인다. 먼저 經·律·論 三藏을 ‘經部 律部 論部’의 개념으로 보고 이를 ‘上, 中, 下’ 3권으로 나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經部 아래에서는 ‘類’의 개념, 즉 華嚴經類 涅槃經類 法華經類 등의 개념으로 ‘大華嚴經 大涅槃經 毘盧神變經’ 등의 類別 순서로 각 書名을 기입하고 있다. 그런데 각 經論의 經典名의 書名을 기입할 때에는 完全書名을 기입하지 않고, 예컨대 ‘大華嚴經, 大涅槃經, 法華經’ 등과 같이 略書名을 기입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은, 목록을 기입할 때 통상적으로 지칭되면서 널리 사용되는 생략된 書名인 略書名을 기입함으로써, 이른바 ‘목록의 간결성(簡潔性) 효과’를 최대한 살린(極大化) 것을 주목할 수 있다. 현대목록학에서는, 조그마한 한 장의 카드목록 속에 기입해야 할 요소가 약 150여 가지 이상 되기 때문에, 각 요소의 간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장총록』에서 각 經論의 서명을 기입할 때 略書名을 기입함으로써 목록의 간결성을 꾀한 사례에서, 우리는 이 목록의 卓越性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교장총록』 각 經論類 아래에서 각각의 章疏들을 기입할 경우에는, 예컨대 <그림 2-1>에 보이는 ‘智正의 『大華嚴經疏』 20卷’의 경우 “疏二十卷 … 智正述”이라 하여, 중복되는 經題명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章疏의 성격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인 疏·鈔·科·搜玄記·論·集解·儀記 등에서 예컨대, 疏이면 그냥 ‘疏’라고만 기입함으로써 그 識別力을 극대화시킨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략된 章疏名에 이어서 그 ‘卷數’를 기입하고, 그리고 그 줄(行) 하단부에 저자 사항인 ‘智正’이라 기입하고 있다. 연이어 著述·刊撰·御製·注·說·續·集·撰 등의 저술 관련의 형식 사항 중에서 ‘述’만을 기입하고 있다. 이처럼 각 章疏의 書名 및 저술의 형식에 관하여, 중복되는 서명은 모두 생략하면서 동시에 저술의 형식만을 부각시켜 기입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목록상에서 그 식별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음이 가장 큰 특징임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교장총록』의 각 經典別類 아래에서 각각의 章疏를 기입할 때, 同一 著者의 저작물 2건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章疏名들을 集結하여 密集시키는 경향

을 보인다. 예컨대, <그림 3>의 왼쪽에 보이는 智圓이 저술한 『大涅槃經疏』 20卷'과 『大涅槃經三德指歸』 20卷'의 경우, 그 첫줄에 “疏二十卷”이라고만 쓰고 그 줄(行) 아래의 하단부는 空白으로 비워놓고, 그 다음 줄에 “三德指歸二十卷 … 已上 智圓 述”이라 기입하여, 同一著者의 해당 章疏마다 저자사항을 기입하지 않고 최후의 章疏名 아래에만 “已上 ○○ 述”이라고 기입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또한 『교장총록』의 書誌記述의 ‘간결성(簡潔性)’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결 론

이상의 본론에서 『新編諸宗教藏總錄』(1090)의 찬술배경과 서지기술에 관하여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는 『교장총록』의 찬술배경을 논술하였다. 그 결과, ① 義天은 『開元釋教錄』을 편찬한 智昇의 護法情神을 이어받아, 당시 고려에서 불교의 연구와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研究論著들인 章疏가 결핍되어 있음을 절감하고, 한국(新羅, 高麗)을 비롯한 중국(唐, 宋)과 遼·日本·高昌國 등 동아시아 전 지역에 散在하는 모든 章疏를 총괄적으로 수집하여 ‘一藏’으로 結集(刊行)하고자 誓願하였다. 그리하여 의천은 대장경에 내포된 심오한 佛法의 내용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章疏들을 『교장총록』으로 目錄化하고, 이 목록에 입각하여 諸宗教藏을 一藏으로 板刻하고 간행함으로써, 諸宗教藏이 대장경(三藏)을 補贖함과 동시에 이른바 ‘第四藏’으로써 三藏인 대장경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전해지면서 불교를 弘布하는 것에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世界最初の 章疏目錄인 『교장총록』이 찬술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② 義天이 『新編諸宗教藏總錄』을 편찬하면서 특히 ‘諸宗教藏’이라 明記하면서 ‘諸宗’을 강조한 이유는, ‘諸宗의 兼學만이 佛陀의 가르침(佛教) 全般을 파악하고 證得할 수 있다’는 信念과 確信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임을 파악하였다. ③ 의천이

『교장총록』을 찬술한 후 興王寺에 <敎藏司>를 설치한 것은 1091년이며, 『靈通寺 大覺國師 碑文』에 ‘名流들을 불러 모아서 교정하게 하여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文籍이 大備되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諸宗教藏 板刻의 마무리는 늦어도 10년 이내, 즉 의천의 涅槃(1101) 이전에는 목판 전체의 판각이 완료되었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교장총록』의 서지기술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 교토박물관을 방문하여 ‘高山寺 所藏 『新編諸宗教藏總錄』(1176 筆寫本)’을 실제 조사 중에서 書誌記述 사항에 국한하여 논술했다. 그 결과, ① 『교장총록』의 目錄記入方式은, 현대목록학에서 ‘첫줄 내어쓰기’ 방식에 비견되는 이른바 ‘첫줄 올려쓰기’라는 탁월한 방식의 目錄記入法을 채택하고 있음을 특히 주목하였다. ② 『교장총록』에서는 11세기 말기에 이미 독창적인 ‘書名先記入方式’을 채택함과 동시에 章疏目錄의 세계적인 효시(嚆矢)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서양이나 한국의 ‘현대 목록규칙’ 및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에서는 20세기 후기에 와서야 비로소 著者先記入方式에서 書名先記入方式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교장총록』 書誌記述의 방식에서는 각 著述(章疏)의 識別性과 簡潔性을 極大化시킨 획기적인 목록기입법을 창안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장총록』 書誌記述의 獨創性과 卓越性이 立證되었다.

<참고문헌>

金富軾. “靈通寺 大覺國師 碑文.”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688-714.

『宋高僧傳』 卷5, ‘智昇傳’.

義天. “刊定成唯識論單科序.” 『大覺國師文集』 卷第1.

義天. “代宣王諸宗教藏彫印疏.” 『大覺國師文集』 卷第15.

義天. “代世子集敎藏發願疏.” 『大覺國師文集』 卷第14.

義天. “新集圓宗文類序.” 『大覺國師文集』 卷第1.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序.” 『大覺國師文集』 卷第1.

義天. “與內侍文冠書.” 『大覺國師文集』 卷第13.

智昇. 『開元釋教錄』 卷第1. 『大正新修大藏經』 第55卷. 東京: 大正新修大藏經
刊行會, 昭和52.

국립중앙도서관 편.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단행본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93.

김남석. 『도서편목법』 개정증보판.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5.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80.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연세대학
교 대학원. 1982. 12.

김성수. “高麗續藏經目錄 編成의 사상적 배경.” 『인문과학논총』 제6집(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87. 12). 215-235.

김성수. “『신편제종교장총록』의 著錄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6집(1997.
7). 1-22.

김성수. “고려 초조대장경 각판의 발원 장소 및 일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
학회지』 제45권 제2호(2011. 5). 75-96.

김성수. “고려 諸宗教藏의 가치와 의의에 관한 연구.” 『불교학연구』 제30호(2011.
12). 7-63.

김성수. “의천, 『신편제종교장총록』의 체계성과 국제성.” 『고려 제종교장 학술발
표회』 (일시: 2013년 3월 28일(목) 오후1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세미나룸. 주최: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33-56.

김성수. “의천, 제종교장의 수집 배경 및 간행 영향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58집(2014. 6). 55-89.

김성수. “『교장총록』 천태·법화 章疏 및 의천의 시대정신에 관한 연구.” 『書誌學
研究』 제62집(2015. 6). 65-99.

-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大屋徳城 編. 『新編諸宗教藏總錄』 第1-3卷. 影印本. 東京: 便利堂, 昭和11(1936).
- 大屋徳城. 『高麗續藏經雕造考』. 東京: 便利堂, 昭和12(1937).
- 박상국. “의천의 敎藏.” 『普照思想』 제11집. 서울: 普照思想研究院, 1988.
- 박용진. “고려시대 敎藏의 간행과 流轉 및 그 의의.” 『初雕大藏經과 東亞細亞의 大藏經』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학술회의: 2012.12.9.,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1층 회의실). 179-238.
- 서진수, 이지범. 『고려대장경의 비밀』. 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2013.
- 예바 베로나, 김태수 · 이재선(번역). 『저록작성원칙규범』.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5.
- 이상헌 옮김. 『대각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